

# 지역 특색 맞는 공공건축물로 전북 가치 높인다

### 전북자치도, 제2차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회의 개최... 공공건축 제도 개선·발전 방향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도청에서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28일, 제3기 전북특별자치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출범식에서 건축가, 교수, 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 31명을 위촉한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모이게 됐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제3기 출범 이후 추진했던 사항들을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 방안과 공공건축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시 공간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공공건축물과 도시환경의 공공적 가치 구현, 지역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 품격 향상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는 도시의 공간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도청에서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회의'를 개최했다.

을 제시하고, 건축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며, 도시의 공공건축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 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괄·공공건축가

월례회의를 시작으로 총괄건축가 실무회의 총 20회, 공공건축가에 배정받은 17개 사업에 대한 자문 총 10회 등을 실시하여 공공건축사업 추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최근 주택건축과 내 공공건축팀이

신설되면서, 도내 공공건축 사업비 50억 이상 대상사업에 대해 설계공모부터 준공까지 공사 전 과정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도시의 복잡성과 다양성 등과 함께 도시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건축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번 민간전문가를 통해 전북다운 공공건축물을 건립함으로써 품격 있고 멋스러운 공공건축이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전북의 건축문화를 한 단계 높이고 지역 특색에 맞는 건축물을 조성해 전북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농협전북본부(본부장 김영일)가 지난달 31일 도청 로비에서 '전북자치도민 아침밥 먹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도민 아침밥 먹기 운동 '맞손'

### 전북특별자치도-농협전북본부, 업무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농협전북본부(본부장 김영일)가 도민의 건강한 쌀 소비문화 형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중훈 경제부지사와 농협 전북본부 김영일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도청 로비에서 '전북자치도민 아침밥 먹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북 쌀로 만든 아침밥을 나누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두 기관은 도내 자원을 활용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과 전북 쌀 산업 발전을 목표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아침을 거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는 쌀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김영일 농협 전북본부장은 "쌀은 대한민국의 근원적 식량이며,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원이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서양식 식습관의 확산과 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북 쌀 산업과 농업 발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통해 도민의 건강한 식습관을 정착시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생산 쌀 가공 제품을 적극 활용하고,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조례 제·개정 컨설팅 통한 전북특별법 시행 준비 '만전'

### 전북자치도, 1차 컨설팅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특례시행 조례 제·개정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오는 12월 27일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 특례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의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검토 및 제수도 등 선행 특별자치시·도의 사례 자문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말에 시행될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할 사항은 총 56건이며, 이번 1차 컨설팅에서는 조례안이 마련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4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특례시행 조례 제·개정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했다.

월에는 조례입법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컨설팅을 개최한 바 있다.

컨설팅에는 민기 교수, 백종인 교수, 호우미 법제지원관이 참여했다. 민기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가로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 후 전북 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백종인 교수는 행정법 전공으

로 전북대학교 법과 대학장 및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호우미 법제지원관은 법제처에서 전북자치도의 자치법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 근무 중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나머지 특례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례안을 마련하여 2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컨설팅이 담당 부서들의 자치법규 입법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며,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마련을 통해 전북특별법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장수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과 소통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장수군 농공단지를 찾아 입주 기업 대표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박용근 도의원과 장수군, 장수 농공단지, 장계 농공단지, 천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청정장수오미자영농조합, 변압조경(유), (주)천본, 농업회사법인(주)웰푸드, (유)청정바이오산업, (주)피티앤티 6개 기업의 대표가 참여했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노후 농공단지

기반 조성 사업 예산 증액, 농공단지 불투명 지원 확대,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 상한액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 송주삼 기업애로해소과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온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며 "장수군에서 경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어떤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가루쌀 재해보험 추가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가루쌀(바로미2)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보험 추가 신청 접수를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가루쌀 재배농가의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청 대상은 가루쌀을 재배하는 농가, 종자원 재배단지 등이며, 특히 가루쌀 생산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가는 필지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재해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가루쌀 재배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예기치 않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재해보험 추가 신청 접수를 시행하게 됐다"며, "해당 농가들은 재해보험에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9월 중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는 도내 14개 시·군 대상으로 8월 8일까지 지방세 체납 징수 사례를 접수하고, 서면 평가로 6개 시·군을 선발하여, 9월 중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선정 분야는 체납징수와 벤치마킹 2개 분야이다.

체납징수 분야는 효율적인 체납징수 기법 도입과 각종 징수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인 사례이고, 벤치마킹 분야는 타 기관이나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하거나 및 창의적 운영을 통해 지방 세정을 확대 발전시킨 사례이다. /이만호 기자

대회 결과 총 6개 시·군(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이 선발되며, 최우수 110만 원, 우수 70만 원, 장려 5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각각 부여된다.

특히, 최우수에 선발된 사례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하는 자격이 부여된다.

발표대회 평가배점은 지속가능성, 창의성 등 서면 50점, 내용전달력, 자료구성 등 발표평가 50점의 합산 점수이다. 전북자치도 김중필 차지행정국장은 "지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 세정 개선 방안 발굴에 애써주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런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시·군의 노력을 평가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